

[21 ~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

(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인다
 최령(最靈)호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곧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업는다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호노라
 <제2수>

말 한마디 업습 바위 사귄 일도 업건만은
 고모진태(古貌眞態)*를 벗 삼아 안즈시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탁연직립(卓然直立)*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구름 깃흔 골짜기에 알 이 있어 츠즈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정(世情)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왕기순인(枉己循人)*해야 내 어딴 읊아가리오
 산 도쿄 물 도쿄 골에 삼긴 대로 늘그러라
 <제6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호 오인: 가장 신령스런 우리. * 직립불의: 곳곳이 섬.
 * 고모진태: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 * 탁연직립: 빼어나 곧게 섬.
 * 왕기순인: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나)

우리 집엔 웃어른이 아니 계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나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의(風儀)*가 참덕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입정(入定)*을 맞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얼마 동안이었던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풍상(風霜)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그 몸이 어느 땅 흠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흥중엔 무한한(無限恨)인 채 임종하시고만 아버님의 머리맡에는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였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네 아버지 쓰던 것으로 이것 하나라고,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크기를 기다리시던 것이 이 연적이다. 분원사기 살이 담청인데 선홍 반점이 찍힌 친도형의 연적이다.

고인과 교락을 같이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 문방구뿐이리오.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찾종 하나, 슬병 하나**라도 그 모서리가 트고, 금간 데마다 배이고 변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는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중략)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었다 해서만 완상할 것은 못 된다.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운(德潤)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너무 지교(至巧)해서 손톱 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나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워낙이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모 든 것이 그렇다. 목침, 나막신, 반상, 모두 생활 속에 들어와 사용자의 손때가 물을수록 자꾸 아름다워지고 서적도, 요즘 양본 들은 새것을 사면 그날부터 더러워만 지고 보기 싫어지는 운명 뿐이나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만 표지도 윤택 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의 「서장(書狀)」**을 얻었다. 4백여 년 전인 가정년간(嘉靖年間)의 판으로 마침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藏印)이 남고 그의 친적(親蹟)인진 모르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있다. 「서장(書狀)」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마는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 일자를 써서 사란(絲欄)*을 쳐 가며 칼을 갈아 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버릇없이 된 글, 안된 글을 함부로 막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완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度日)*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이 불급하는 것을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직업적이어서선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낙사(賞心樂事)*란 무위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태준, 「고완」 -

* 풍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
 * 입정: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상태로 들어감.
 * 사란: 여러 개의 금을 그어 ‘井’ 자 모양으로 된 각각의 칸살.
 * 도일: 세월을 보냄. * 상심낙사: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22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시가에서 자연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되거나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1) 2017년 3월 시행,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1~23번(복합)

-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23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찾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③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대해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림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차림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갈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흠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뒤편려 만든 쇠붙이 같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땀뭍았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붙이와 쇠붙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같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제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㉗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시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릴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흑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하는 바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펄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 “아선 절로 가시야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꽃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림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보았더냐?
 치 수 못 가 보았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 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봐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 씨 산으로?
 치 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니!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 어머니!

대문계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당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결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니.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34.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3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36.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림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37.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② 후안무치(厚顔無恥)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뒹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멧대 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족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회끄무레한 남자 고무신 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뒹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뻘**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북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 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

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본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뻐사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 짝이예요, 또 그, 그 고무신 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혈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 이호철, 「큰 산」-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눈 내린 겨울 아침**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별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죽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너!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 1」 -

*별목 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구로 표현한 것임.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 [A]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쌍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 [B]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 [C]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D]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 [E]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Ⅱ」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잡지)’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듯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찢어버린
때문은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엮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되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별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

3) 2017년 7월 시행,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32번(복합)

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잠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 커피의 상표. * 체전부 : 우편배달부. * 한난계 : 온도계.

2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 (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 (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걸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러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걸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0. (나)의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러’우며 ‘자랑’없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31.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석간’ 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 베짖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⁴⁾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아.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낯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똬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떡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뿔아 들고 무 조각 하나 당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팔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움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쫓그러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 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뒹 하러 나다녀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뿔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낫잖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은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보면 전혀 영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썽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찬우야!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버지랑 찬세가 얼마나 기다리겼냐야.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얼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 2017년 9월 시행,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소설 43~45번

44.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②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④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⑤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뜩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㉑에서 ‘어머니’가 닳투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② ㉒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③ ㉓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④ ㉔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뜩함을 느끼게 하는군.
 ⑤ ㉔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최 노인 :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㉑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 원 아버지두……

최 노인 : 이눔아 뭐가 우스워?

경재 :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㉔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㉒(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헴!

(중략)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㉒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기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 그래 이눔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 여보 김 참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리 줄 아느냐? 이눔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깐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 음 이눔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눔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 김 참지! 글썽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눔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 해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 글썽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최 노인 : 아 ㉒김 참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쉼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 이눔아! ㉒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났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집니까?

최 노인 :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 예? 전세라구요?

㉒(어머니와 경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눔아! 이 애비

5) 2017년 9월 시행,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희곡 23~26번

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 프냐?

경수 :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 노인 :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애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이볼'이라든가……

경운 : '샤플보오드*' 말씀이에요?

최 노인 : 그대 '샤플보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가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대 애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 흥! 너희들은 모두 한숨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벌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헤친다.)

어머니 : @!(땀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샤플보오드(shuffleboard) : 오락의 한 종류.

25. <보기>와 ㉠~㉣를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 '경재'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 ㉢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 '최 노인'은 ㉣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밭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 ㉢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 ㉣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 ㉤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앞부분의 줄거리>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이다 그 대가로 일가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나게 된다. 폐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된 ‘사내’는 새 여인에게서 얻은 어린 아들을 맡기고 자신도 고향에 빠를 문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 온 ‘사내’를 데리고 밤에 산을 오른다.

[A] 사내가 일어서서 골짜기 아래를 눈으로 더듬었다. 골짜기에서부터 부챗살처럼 펼쳐 나간 벌판에는 가득히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달빛, 달빛뿐이었다. 그 달빛에 사내는 어쩐지 눈이 시렸다. 사내는 마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달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달빛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 사내의 귀에 가득히 팽과리 소리가 밀물져 들어왔다. 사내는 바로 사내가 선 자리에 빠를 문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 가 보자.”

노인이 이번엔 앞장을 섰다. 등성이의 가르마 길을 타고 오르자 산 중턱쯤에서부터 숲이 끊기고 별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났다. 갑자기 산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그들을 허우적거리게 했다.

노인이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잡고 민둥산을 훑어보았다.

“버렸어. 산두 그때 다 버렸어. 포탄으루 맥이란 맥은 다 끊어 버리구…… 다야 니놈들 때문이여.”

사내도 노인의 시선을 따라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을 보았다.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는 쿵쿵 터쳐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내가 마치 그것들을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빨리 말했다.

㉠ “가지라우.”

민둥산을 가로질러 다음 골짜기에 이르자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나왔다. 노인이 멈추어 섰다.

“여기여.”

노인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맥이 다치지 않은 데라군 이 산에서 여기뿐이여.”

사내는 평지의 잔술 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보았다. 사내가 얼굴에 두려운 기색을 떠올리며 봉분들에서 눈을 돌렸다.

“사죄해라. 이게 다 니놈 때문에 생기신 원혼들이여.”

“…….”

사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재촉했다.

“아, 뭘 해? 빨리 없드려 잘못을 빌지 않구.”

사내가 가까운 봉분 앞에서 재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자, 노인이 뒤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게 을득이여.”

[B] 사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오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형언키 어려운 것들이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滿空)의 달빛처럼 사내를 부풀리는 것이었다. 사내의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내려 마른 풀잎을 적셨다. 사내가 하나하나 봉분을 옮겨가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노인은 뒤에서, 그게 당숙 둘째 자제여, 그게 사촌 형님 손자여, 그게 누여, 사내에게 일

일이 소개를 했고, 그럴 때마다 사내는 잠깐씩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다.

(중략)

노인은 다른 봉분들과는 달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한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갔다. 사내가 봉분 앞에서 엎드리려 하자, 노인이 만류했다.

“그건 사죄할 필요 없다.” / “……?”

“그건 니놈이여.” / ㉡ “……예?”

노인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 사내를 쳐다보았다.

“아, 우린 죄다 니놈을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으니까. 실사 니놈이 살아 있는 걸 알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니놈두 읍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여?”

노인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에 일순 애매한 표정이 스치자 노인이 사내의 표정을 피했다.

“니놈은 호적에도 없다. 사망 신고를 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살어야 허니까…….”

사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 쿨룩, 쿨룩, 쿠루욱…… 온몸의 가래를 훑어 올리는 듯한 기침 끝에 사내는 한 움큼의 피를 토해 냈다. 노인이 부욱, 두루마기 자락을 찢어 사내에게 내밀었다.

“뉘어라.” / 사내가 잠자코 두루마기 자락을 받아 얼굴과 손의 피를 씻었다. 흰 두루마기 자락에 핏빛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문득 사내의 눈에 달과 함께 수면에서 흔들리던 피 묻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사내가 말했다.

“아부님, 전 인제 아무 데도 못 가겠수.”

노인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니놈은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할 놈이여.”

“아무래도 죽을 목숨이우.” / “죽드라도 타처에 가서 죽어라.”

“아부님.” / 사내가 노인 앞에 엎드렸다. ㉣ 노인이 백랍 같은 표정으로 사내를 때치고 일어섰다.

“이 길루 곧장 떠나가라. 자식 놈은 내가 맡으마.”

노인과 사내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다다랐을 때에는 달이 툭 날 같은 연봉에 걸려 있었다. 사내가 노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아부지, 그럼…….”

사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어서 가.”

㉤ 사내가 몸을 돌려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저만큼 멀어질 즈음에 노인이 사내의 등을 향해 외쳤다.

“죽게 되든 연락해라. 내 니놈 뒷수습은 해 줄 테니까.”

[C] 이윽고 노인은 앞이 침침해지면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선 자리에서 나무토막처럼 푹 쓰러졌다.

└ 달이 졌다.

- 송기원, 「월행」 -

36.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 ⑤ ㉤: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6)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현대소설 36-38번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60~1970년대에 많이 등장한 귀향 모티프 소설 중에는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게 된 주인공이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귀향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월행」에도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시 찾은 고향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기에 주인공과 고향의 관계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주인공은 속죄의 의식을 치르지만, 고향은 그의 귀향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암시한다.

- ①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사내’가 고향에 ‘뺨을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든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8. [A]~[C]에서 ‘달’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 ③ [C]에서는 ‘달’의 변화된 상황이 ‘사내’의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달빛’의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43~45]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옳으니 하며 짜그락 거리기 일쑤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뚝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툇던 *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 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더라고 귀뽀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 뜸— 뜸부기 짝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춧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평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떼매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발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벽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열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뭣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둥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멧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니?”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석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

7) 2017년 11월 시행, 2018학년도 수능 현대소설 43-45번

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여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붓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무등 타기와 숲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라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문구, 「수필」

- *뚫던 :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뚫던.
- *콩노릇 : 콩의 꽃.
- *자마구 : 곡식의 꽃가루.
- *뒀네기 : 뒀서리.
- *감뭇하기도 : 보이던 것이 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잡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정 답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현대소설(복합) (2017년 3월 시행)
21.② 22.⑤ 23.③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현대소설(복합) (2017년 4월 시행)
34.② 35.② 36.④ 37.⑤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소설(2017년 6월 시행)
39.⑤ 40.② 41.⑤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현대소설(복합) (2017년 7월 시행)
28.① 29.② 30.④ 31.④ 32.⑤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소설(2017년 9월 시행)
43.① 44.③ 45.③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희곡(2017년 9월 시행)
23.⑤ 24.④ 25.④ 26.⑤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현대소설(2017년 10월 시행)
36.⑤ 37.② 38.③
2018학년도 수능 현대소설(2017년 11월 시행)
43.③ 44.② 45.③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